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걸작)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절의 의미, 문단의 중심 내용, 그림에 대한 필자의 인상이 달라지는 계기나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습서를 참고하여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학습하고 주요 구절의 풀이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

그러나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

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마)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 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1. <보기>는 윗글 ㉠, ㉡의 그림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은 매서우면서도 기를 발산하는 듯하며,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 ② ㉠은 강한 느낌의 첫인상을 주는 작품으로, 정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단아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 ④ ㉡은 중용의 미감을 지키는 성리학의 정신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과 ㉡은 공통적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느낌을 준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윤두서의 ㉠ '자화상' 미켈란젤로의 ㉢ '노예상'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

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은 ㉡와 달리, 목과 상체가 없으므로 하여금 비로소 완성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 ② ㉠과 ㉡는 오히려 미완성작으로 하여금 그 예술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과 ㉡는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표현 기법이 부각되어 작품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 ④ ㉡는 ㉠과 달리,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인하여 원래 작품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파괴되었다.
- ⑤ ㉡는 ㉠과 달리,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미완성작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나)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

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 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재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

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여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

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바)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쫓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
- ② (나) :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
- ③ (다) :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
- ④ (라) : 사대부의 가치관에 이상적인 ‘자화상’
- ⑤ (마) :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쩌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

화 효과는 결코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㉔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숲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㉔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4. 윗글에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
- ②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찬문의 내용
- ③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예술적 평가
- ④ 윤두서 자화상의 회화 효과와 당시 사대부들의 유교적 가치관
- ⑤ 윤두서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

5.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자화상이 미완성작인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추정임.
- ② ㉒ : 윤두서와 당시 사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근거임.
- ③ ㉓ : 필자가 자화상이 미완성작임을 확신하는 근거임.

④ ㉔ : 자화상의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의 구체적 설명임.

⑤ ㉔ : 필자가 작품의 훼손을 표구상의 실수로 추측하는 근거임.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

㉑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

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쩌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라)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

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마)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

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쫓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필자는 첫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② '자화상'의 충격적 회화 효과는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조선 사료집진속'의 '자화상' 사진과 현존하는 '자화상'은 다른 모습이다.
- ④ 필자는 '자화상'을 보고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에서 공포감을 느꼈다.

⑤ '자화상'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로 권위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 ② ㉡ : '자화상'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 필자가 '자화상'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 :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 ⑤ ㉤ : '자화상'이 미완성작이지만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이유이다.

8. 뒷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윤두서 집안의 가게
- ② 작품 속 열일곱 개 가로줄의 정체
- ③ 정면상에서 입체감을 형성하는 요소
- ④ 그림에 대해 품었던 의문을 풀어나간 방법
- ⑤ 필자와 최순우의 그림에 대한 상반된 첫인상

9. 뒷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은?

- ① 찬문 내용과 다른 '자화상'에 관한 의문
- ② 첫인상에 대한 상념과 첫인상을 구성하는 요소
- ③ 윤두서 '자화상'의 문화사적 평가와 예술적 가치
- ④ 윤두서 '자화상'과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상
- 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미감에 따른 '자화상'의 회화 효과

10.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윤두서 '자화상'은 좌우 대칭이 완벽한 정면상에 입체감과 거리가 있는 극사실주의 작품이다.

② 옛 사진 속 '자화상'의 윤두서는 편안히 앉은 상태의 얼굴을 그린 것이며 침착하고 단아하여 중용의 미감을 지키고 있다.

③ 찬문은 윤두서의 외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문에 묘사된 윤두서와 '자화상' 속 윤두서의 외양은 많은 차이가 있다.

④ 윤두서의 '자화상'이 충격적인 이유는 귀, 목, 상체 없이 신체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으며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⑤ 작품이 가로 열일곱 줄의 금으로 접힌 점과 여러 작품 문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점 때문에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 작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나)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재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라)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

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마)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화상은 족자로 표구되지 않은 미완성의 작품이다.
- ② 자화상의 수염과 탕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다.
- ③ 유탄의 특성은 자화상의 몸체가 쉽게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④ 옛 사진 속 자화상에서는 조선 선비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⑤ 미완성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야 그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가)와 (다)는 모두 인물의 얼굴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 ② (가)는 (다)와 달리 작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인물의 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느꼈던 그림의 첫인상이 (다)로 오면서 달라지고 만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얼굴이 아닌 외적 요소에 더 주목해서 그림을 평가하고 있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재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

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라)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마)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13.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과 이에 대한 상념
- ② (나) :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과 의문점
- ③ (다) :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 ④ (라) :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
- ⑤ (마) : 미켈란젤로 '노예상'의 영향을 받은 윤두서 '자화상'

14. 같은 초상에 대한 인상이 (나)의 ㉠에서 (다)의 ㉡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에 보이는 가로 접힌 금이 사진에서 선명해지자 인상도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 ② 너무나도 사실적인 얼굴 표현이 사진에서 더욱 두드러져 인물의 실체를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 ③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의 찬문의 내용이 그 동안 잘못 전해졌다는 사실을 사진에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미완성 작품의 충격적인 회화 효과가 미숙한 표구상의 작업을 통하여 부드럽게 녹여졌음을 사진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 ⑤ 첫인상은 인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사진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다 빈출 유형 2

비문학 지문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글에 사용된 서술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필자가 '자화상'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평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답> ⑤

㉠에 대해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과 달리 ㉠은 조선 시대 사대부의 윤리, 도덕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에 대해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 대해 '인물은 정면상이다.'라고 말한 것과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 대해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에 대해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답> ②

㉠에 대해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에 대해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에 목과 상체가 있

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 ㉠와 ㉡에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표현 기법이 부각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본문과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본문과 <보기>의 내용상 ㉠, ㉡의 작품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미완성인 상태로 두었기 때문이다.

㉣ <보기>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로 보았을 때 ㉡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인하여 원래 작품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한층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 본문과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와 ㉡ 모두 작품을 미완성작으로 둔 이유와 시대적 배경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답> ④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겼던 당시의 가치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화상'이 사대부의 가치관에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에서는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나)에서는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며 외양 묘사의 특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는 '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라는 말을 통해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 (마)에서는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를 추측하고 있다.

4. <답> ③

윗글에서 '자화상'에 대한 예술적 평가는 확인할 수 없다.

①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와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를 통해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는지, 작품이 완성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여섯 자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충격적인 회화 효과와 관련하여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당시 사대부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공자의 말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가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답> ②

윤두서의 그림이 당시 사대부의 가치관과 맞지는 않지만, 윤두서가 당시 사대부와 갈등을 겪었다고 볼 근거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은 작품에 있는 가로 접힌 금을 근거로 필자가 추측한 내용에 해당한다.

③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두서의 몸은 유탄으로 그려졌고, 이는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윤두서가 '자화상'을 미완성인 채로 그리는 작업을 끝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④ 기존의 '자화상'과 사진을 통해 남은 과거의 '자화상'을 비교하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라고 말한 뒤 ㉡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⑤ 필자는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추측을 밝힌 뒤 ㉡을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6. <답> ⑤

필자는 '자화상'에 대해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화상'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윤두서가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판단했을 때, 과감히 미완성인 상태로 그림 작업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①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와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답> ①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문체인 것은 맞지만,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② ㉠과 관련하여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필자는 '자화상'으로부터 받은 공포감과 맞지 않는 찬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④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자화상'이 미완성작으로 남은 것에 대해 필자가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

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답> ⑤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로 보았을 때, '자화상'을 보며 충격과 공포를 느낀 필자와 마찬가지로 최순우 선생도 그림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필자는 '자화상'의 옛 사진에서 드러나는 인자한 인상과 오늘날 남아있는 '자화상'의 날카롭고 무서운 인상을 비교한 뒤 '자화상'이 미완성인 작품이기 때문에 신체 부분이 지워졌고, 미숙한 표구상에 의해 유탄으로 그려두었던 신체 부분이 지워지며 보는 이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의문을 풀어나가고 있다.

9. <답> ③

윗글에서는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감상만 드러날 뿐, '자화상'에 대한 문화사적 평가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려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첫인상으로 인해 다양한 생각이 생겨날 수 있

다고 말한 것과, '인물, 옷, 배경, 장소의 독특한 빛의 흐름 등등'을 첫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화상'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감상을, '자화상'의 사진에 대해서는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겼던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미감과 달리, 귀와 목과 신체를 과감히 생략한 '자화상'은 보는 이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회화 효과를 드러낸다.

10. <답> ②

'자화상'의 옛 사진을 본 필자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의 정면상이 입체감을 갖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얼굴 전체에 난 수염, 표정, 탕건 등을 통해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찬문에 묘사된 윤두서의 외양을 통해 '자화상'이 윤두서 자신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찬문에 묘사된 윤두서의 외양과 '자화상' 속의 외양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어쩌면 옥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를 통해 실제로 옥에 간혀 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임을 알 수 있다.

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로 보았을 때,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필자의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11. <답> 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를 보았을 때, '자화상'은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

다가 후에 미완성작임이 밝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윗글의 내용을 통해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지는 유탄은 주로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하는 미술 도구이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그리는 작업을 끝냈음을 알 수 있다.
- ④ 옛 사진 속 '자화상'을 본 필자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2. <답> ④

윗글의 필자는 (가)에서는 공포스럽다고 느꼈던 윤두서의 인상이 (다)에서는 오히려 인자하고 따뜻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 ① (가)와 달리 (다)는 인물의 얼굴과 함께 전체적인 옷차림과 분위기를 감상하고 있다.
- ② (가)가 아니라 (다)에서 작품의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모두 인물의 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얼굴에만 주목하여 그림을 평가하고 있다. (다)는 얼굴과 함께 외적 요소에도 주목하여 그림을 평가하고 있다.

13. <답> ⑤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은 '자화상'과 마찬가지로 미완성인 상태로 작업을 끝낸 예술 작품의 사례일 뿐, 그것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① (가)에서는 '자화상'을 본 화자가 작품 속 인물에 대해 으스스한 느낌, 섬뜩한 공포감 등을 첫인

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무인일 수도 있고, 냉엄한 장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다양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라고 말하며 특이점을,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라고 말하며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옛 사진 속 '자화상'을 본 필자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라고 말하며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를 추측하고 있다.

14. <답> ⑤

'자화상' 속 인물에 대한 필자의 인상이 바뀐 것은 옛 사진 속 '자화상'에는 오늘날의 '자화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의 신체, 의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종합하여 본 뒤 '자화상' 속의 인물이 차갑고 무서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을 바꾸고 있다.

- ① 그림에 보이는 가로 접힌 금은 그림이 미완성인 상태로 들들 말려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의 근거가 될 뿐, 인상이 바뀌게 된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실제 윤두서의 성품은 ㉠에서 잘 드러나지만, 사실적인 표현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찬문의 내용이 그 동안 잘못 전해졌다는 사실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표구상의 작업으로 인해 녹어진 것은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다. 또한 이는 인상이 변화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15. <답> ⑤

(바)에서는 (마)에서 깨달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 ① (나)에는 (가)에서 받은 인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과 함께 첫인상은 믿을 만한 것